

## 새정치 견제 세력 사라져 대안 정당 등장할까 촉각

**뉴스 초점**  
통진당 해산 지역정파 파장

진보정당 지지율 10%대  
지역정치권 재편여부 관심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 정파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의 견제 역할을 해 온 통진당의 해산으로 인해 사실상 새정치민주연합의 '1당 독주체제'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진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견제·대안 세력이 태동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 일각에서는 지역정파 재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전남 정파에서 통합진보당은 명실공히 지역 제1야당으로 자리잡아왔다.

광주·전남지역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은 배출하지 못했지만, 2006년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를 포함해 12명(광역 1·기초 11)의 지방의원을 배출한데 이어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39명의 지방의원을 당선시키면서 광주·전남의 '1당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풀뿌리' 대안 정당으로 급부상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18명의 지방의원을 탄생시키며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유일한 견제세력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헌



지난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명령을 선고한 뒤 서울서 열린 통합진보당 집회에서 이정희 대표가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의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모든 정당 활동이 중단되고, 지방의원 비례대표들의 의원직 상실마저 위협받게 됐다.

만약 광주·전남 지방의원 비례대표 5명도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전남 일부 기초의회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독점하게 된다. 지역 기초의원 광주 9명, 전남 4명 등 13명이 무소속으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의회를 새정치민주연합이 독점하게 된다.

반면, 통진당의 해체에 따라 갈 곳을 잃은 통진당 지지층이 다른 야당으로 옮겨갈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 지역정파의 재편도 예상된다.

우선 통합진보당과 진보정당의 양대 축을 이뤘던 정의당을 중심으로 재편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통진당 소속 지역구 지방의원들이 분당으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은 정의당으로 옮겨가는 일은 절대 없겠지만, 광주·전남지역의 진보정당 지지층의 움직임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6·4 지방선거와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로 미뤄볼때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의 지지율은 적게는 10%대에서 많게는 20%대였다. 이는 총 20~40만여 표에 달한다.

따라서 통진당 지지층의 움직임이 변수다. 현재까지는 당이 쪼개지는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정의당으로의 이동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상당수가 부동층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지지층은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인 정의당으로 흡수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 진보정당의 새로운 정치세력 등장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번 통진당 해산 결정이 지역정파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고, 지역정파 재편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국회의원 5명 의원직 상실

광주서를 내년 4월 29일 보선

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관련기사 3·4면> 박한철 소장 등 재판관 8명이 인용했고 김이수 재판관만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다. 헌재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모두 민

주적 기본 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일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협성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통진당 소속 김미희·오병운·이상규(지역구), 김재연·이석기(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통진당이 계속 존속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일하게 반대한 김 재판관은 "일부 당원의 활동을 통진당 전체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직을 상실한 5명 중 지역구 의원 3명의 선거구인 경기 성남 중원, 서울 관악을, 광주 서을 등에서는 내년 4월29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반면, 해산 결정을 받은 통진당은 장외 투쟁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한편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5명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몽구(앞줄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지난 19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 기아차 광주공장을 방문한 뒤 '수소연료전지 R&D 연구 개발센터' 예정지인 광주과학기술원 오희관을 둘러보고 있다. <기아차 제공>

## '광주의 꿈' 자동차 벨리 가까워지나

윤장현 시장·정몽구 현대차 회장 광주서 첫 만남... 윤시장 "대화 매우 유익했다"

자동차 산업 발전이라는 공동 관심사를 가진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윤장현 광주시장의 만남이 처음으로 만났다.

윤 시장은 이 자리에서 광주시의 미래 핵심산업인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산업 벨리 조성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지난 19일 기아차 광주공장 등을 방문해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준비상황을 점검한 뒤 윤 시장과 30여분간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정 회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온 이후 6년 9개월 만이다.

정부 주도로 내년 초 출범 예정인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광주시가 지역 인재와 벤처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창조경제를 중심으로 연계하면, 현대차 그룹이 이를 전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된다. 정 회장은 이날 방문에 앞서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찾아뵙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이에 윤 시장은 "광주를 방문하는 손님이신데, 오시는 곳으로 나가겠다"고 제안해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비공개로 만남이 이뤄졌다.

이는 윤 시장이 취임 전부터 밝힌 광주에 기업인이 방문한다면 "시장실에 앉아 기다리지 않고, 톨게이트까지 마중 나가겠다"는 기업 프렌들리 정신을 실천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동에는 현대차측은 정 회장과 김용환 부회장, 광주시는 윤 시장과 정찬용 광주시 자동차산업벨리 추진위원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윤 시장은 정 회장과 첫 만남인 점을 고려해 자동차산업 벨리에 대한 구체적 제안보다는 정 회장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주요 화제로 삼았으며, 회동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분위기는 좋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시장은 이날 "정 회장께서 수소차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저도) 전국 광역단체장 중 처음으로 수소차를 타고 있다"면서 "광주가 수소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의 역할을 맡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정 회장은 (크게 웃은 뒤) "기아차 광주공장이 타지역에 비해 생산이 잘 되고 있고, 노사관계도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 점에 거듭 감사 드린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해당 자치단체와 협력해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를 바라신다"고 답했다. 이후 윤 시장과 정 회장은 주변 참석자를 제외한 채 단 둘이 5분여 동안 비밀 회동을 했으며, 이후 윤 시장은 밝은 표정으로 "매우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해 광주시의 자동차산업벨리와 관련한 긍정적인 대화가 오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5 정시모집**  
신학과, 국제한국어교원학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음악학과, 실용음악학과  
12월 24일(수) 접수마감  
문의: (062)605-1114

**2015년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 ▶ 최저임금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용자(사업장)의 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근로계약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의로 정하였던 이월계정 임금부분은 무효입니다. 무효로 된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 최저임금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 지방고용노동(지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60)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雪花秀**  
Sulwhasoo  
CAPSULE ESSENCE  
자여진에센스

주름줄기에 맞서는 강력한 힘이  
깊어지는 주름을 탄력으로 차올린다

피부 탄성이 무너지면 잔주름이 깊고 넓게 뻗어 나가는 주름줄기 현상이 시작됩니다. 깊어지는 주름줄기를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 인삼 성분을 캡슐화한 진세나스피어™가 피부 본연의 탄성을 강화시켜 힘있게 치어주는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를 가꿔줍니다. 더욱 강력한 인티에이징 효과로, 주름을 이기는 피부의 힘을 경험하세요.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Sulwhasoo**

·유명백화점이나 약국에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kr · 페이스북: www.facebook.com/sulwhasoo.kr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시간 09:00~18:00)